

월정사·상원사의 문화유산 둘러보기

● 상원사 동종



국보 제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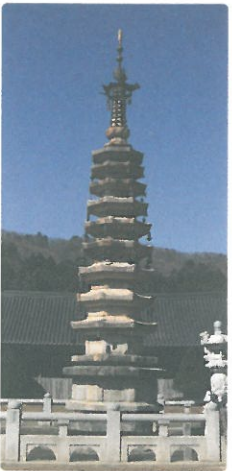
용뉴



주악비천상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주조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안동의 관풍루에 걸쳐 있던 것을 예종 원년(1469)에 상원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종의 표면에는 구름위로 하늘을 날면서 옷깃을 휘날리며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이 아름답게 양각되어 있습니다.

● 월정사 8각다층석탑



국보 제48호

고려 초기 석탑양식을 대표하는 다각다층석탑으로 고려시대의 화려한 귀족적인 불교미술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전체적인 비례와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풍탁과 금동으로 만들어진 머리 장식을 통해 금속공예의 면모를 살필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970년 해체복원시 1층 탑신과 5층 옥개석에서 다양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공원해설프로그램이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일 정	장 소
전나무숲자연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1시, 13시	전나무숲 자연관찰로
월정사역사문화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1시, 13시	월정사 경내
상원사역사문화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4시	상원사 경내
소금강 자연(경관)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0시, 14시	소금강 자연관찰로
방아다리 자연해설	매주 금요일 14시	방아다리 자연관찰로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참가방법 : 선착순 예약(3일전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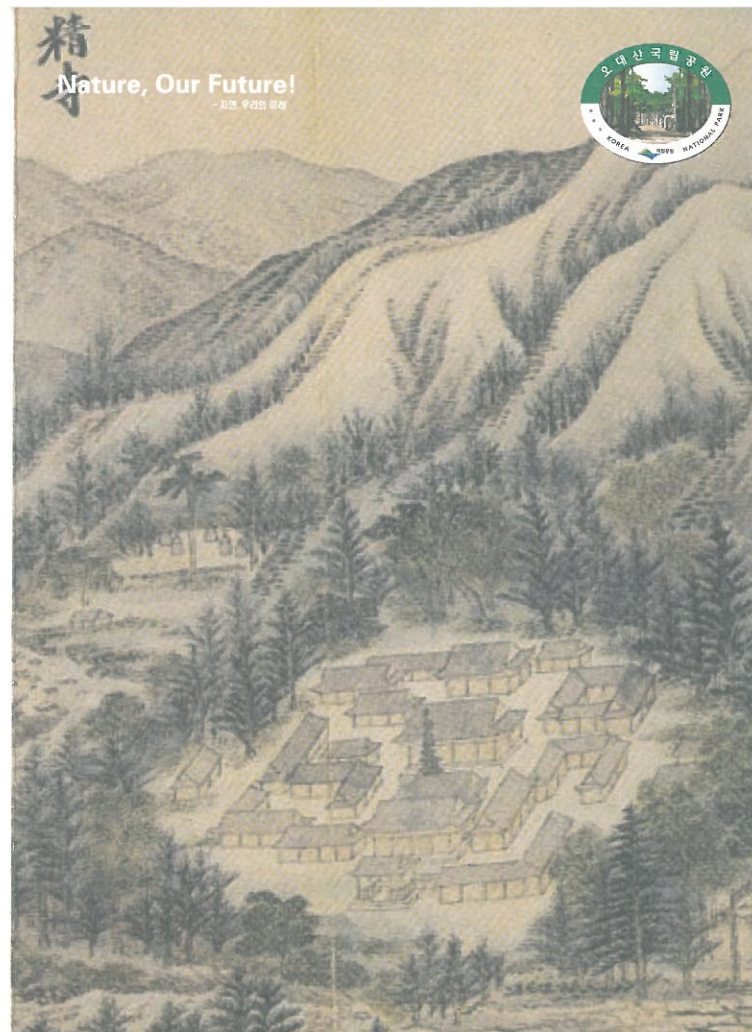
- 전 화 : 033-332-6493
- 인터넷 : <http://odae.knps.or.kr>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오대산국립공원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5-6
Tel 033)332-6417~8
<http://odae.knps.or.kr>



김홍도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오대산국립공원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바뀌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조문수동자좌상



국보 제221호

조선 세조 12년(1466)에 둘째 딸 의숙공주 부부가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몸의 중기를 부처님의 힘으로 고치려 찾아간 오대산 상원사에서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문수보살을 만난 후 이를 형상화해 만들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상원사구장권선문

조선 세조 10년(1464) 왕사인 신미 등이 상원사의 중창경위와 내역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왕실의 어첩과 권선문의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선문은 한문과 한글로 적혀있는데, 목서로 쓰인 한글 권선문은 한글창제 당시의 서체와 표기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국보 제292호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보물 제793호

1984년 복장 조사시 23종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일괄 보물 제79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139호

8각9층석탑 앞에 있던 좌상으로 탑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 석조보살좌상입니다. 강원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약왕보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석탑유물

1970년 기울어졌던 8각9층석탑을 해체 복원할 때 1층과 5층의 탑신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5층 탑신에서 은제여래입상, 1층 탑신에서는 비단보자기에 싸인 사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보물 제137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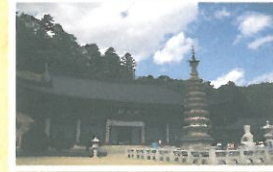
오대산은?

오대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1,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1,000m내외의 봉우리가 완만하게 이어져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품속같은 산입니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다섯 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고 하는 설과, 동·서·남·북·중대 다섯 개의 암자가 있다고 하여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월정사~상원사 : 9km(차량20분)
- 상원사~비로봉 : 3.2km(도보 1시간 40분)
- 비로봉~상왕봉~북대~상원사 : 10km(도보 4시간)

월정사



월정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수보살을 친견한 후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문수보살이 산다고 하는 이곳 오대산에 들어와 정진하였는데, 그때부터 월정사는 오대산 깊은 계곡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원사



상원사는 신라 33대 성덕왕 4년(705)에 보천, 효명 두 왕자가 세운 절로 처음에는 진여원으로 불리웠습니다. 본래 오대산은 신라의 고승 자장이 중국 당나라의 오대산 문수신앙을 수용한 이후로 문수도량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와 세조가 원찰로 삼으면서 상원사에는 여러 전설과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



조선후기 5대사고의 하나로 선조 39년(1606) 선원보각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오대산본은 정분을 보관한 다른 사고본과 달리 전주사고본을 재인쇄, 교정을 본 교정인쇄본을 보관하였습니다.

적멸보궁



적멸보궁의 적멸은 번뇌의 불꽃이 꺼져 고요한 상태 즉 열반의 경지에 이름을 말하고 보궁은 보배스러운 궁전의 의미로, 적멸보궁이란 곧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궁전이라는 뜻입니다.